

주요기업 2분기 실적

포스코홀딩스, 철강·이차전지 양날개… 순이익 808% ↑

매출 19.2조, 영업이익 8190억
리튬사업 흑자… 인프라 부문 호조
“트리플 코어 전략 강화해 나갈 것”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이차전지소재 부문의 실적 회복에 힘입어 2분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리튬 사업 흑자 전환과 인프라 부문의 호조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30일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9조2590억원, 영업이익 8190억원, 순이익 761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7%, 영업이익은 34.9%, 순이익은 808.0% 증가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7.7%, 영업이익은 15.9%, 순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홀딩스

익은 40.1% 늘었다.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졌지만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인프라 부문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이후 성장

세를 이어갔다.

철강 부문에서는 포스코가 원료 단가와 유가 상승에도 판매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늘렸다.

이차전지소재 부문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양극재 재고평가 효과와 음극재 주요 고객사 판매 회복으로 수익성을 개선했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염수리튬1공장 조업 안정화와 설비 개선을 바탕으로 분기 기준 첫 흑자를 달성했다. 포스코필리바리튬솔루션은 판매 확대와 가격 상승으로 손익이 개선됐으며, 포스코HY클린메탈은 높은 가동률과 원가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매출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호주 가스전과 인도네시아 파암 사업 호조에 힘입어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건축사업 수익성 개선으로 실적을 방어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구조개편 목표도 기존 ‘2027년까지 128건·현금 2조8000억 원 창출’에서 ‘2028년까지 129건·현금 3조5000억 원 창출’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구조개편 12건을 통해 약 48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며 누적 85건, 2조2000억원의 현금 창출을 달성했다.

회사 측은 리튬 사업 흑자 전환과 광양제철소 신규 전기로 가동,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철강과 전략자원, 에너지자원을 축으로 한 ‘트리플 코어(Triple Core)’ 전략을 강화해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혜운 기자

dhahledhale@metroseoul.co.kr



metro

SK이노, 배터리 사업 흑자전환… 영업익 3.5조 육박

매출 29.1조, 영업이익 3조4873억
SK엔무브·SK온, 실적개선 이끌어

SK이노베이션이 윤활유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배터리 사업의 흑자 전환에 힘입어 올해 2분기 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9조1572억원, 영업이익 3조4873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분기보다 각각 4조8662억원, 1조3251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9조7040억원 늘었고 영업

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실적 개선은 SK엔무브와 SK온이 이끌었다. SK엔무브는 중동 지역 경쟁사의 공급 차질에 따른 윤활기유 마진 상승과 재고 관련 이익으로 영업이익 6919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5034억원 증가했다.

SK온의 배터리 사업은 매출 2조9460억원, 영업이익 8218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전 분기보다 영업손익이 1조1710억원 개선됐다. 아시아 지역 판매량 확대와 원가 절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증가에 고객 보

상금 등 일회성 요인이 더해졌다.

SK온은 2분기 포드와 설립한 블루오벌SK 합작법인의 종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SK온 테네시 단독 공장을 출범시키는 등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하반기에는 고정비와 구조적 원가를 낮추는 한편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를 확대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유 사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래깅 효과와 재고 관련 이익으로 흑자를 이어갔지만 전 분기보다 이익 규모가 줄었다. SK에너지는 매출 13조2106억원, 영

업이익 6512억원을 기록했다. 6월 유가 하락과 일부 설비의 정기보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6320억원 감소했다.

SK지오센트릭은 파라자일렌(PX) 스프레드 축소와 판매량 감소로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839억원 줄어든 437억원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E&S는 도시가스 수요 감소와 발전소 정비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1773억원 감소한 1059억 원에 그쳤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증산과 아시아 지역

정유설비 가동률 상승으로 유가와 정제마진의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학 사업은 3분기 PX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벤젠 등 주요 아로마틱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으로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이 전망된다. 석유개발 사업의 경우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및 베트남 등 자체 보유 광구에 대한 추가 생산정 시추 등을 통해 일산량 유지와 수익성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운영 효율과 수익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제철,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157억 수익창출 효과

유류 설비·철강 부산물 활용범위 확대

현대제철이 유류 설비와 철강부산물의 활용 범위를 넓혀 자원순환 기반의 수익성 강화에 나섰다. 사용이 끝난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해 현금화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철강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현대제철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구매본부 내에 매각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사 사업장의 유류·불용자산을 집중 조사하고 매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운영을 통해 총 804건의 매각

대상을 발굴했으며, 매각과 내부 활용 등을 통해 약 157억원의 수익 창출 효과를 거뒀다.

현대제철은 사용이 끝난 설비를 단순 고철이 아닌 구리·텅스텐·니켈 등 유가급속이 포함된 자산으로 재평가해 매각 가치를 높였다. 일부 품목은 입찰 참여 업체를 기존 3~4개사에서 최대 16~20개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유도했다.

비철금속 전문업체와 종합상사 등 신규 매입처를 확보하며 유가지연 거래 기반도 넓혔다. 대표적으로 구리가 포함된 동스테이브와 몰드 704톤을 117억원에 매각했다. 폐전선은 종류별로 선별해 구리 회수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혼합 매각 방식보다 평균 매각단가를 20% 이상 높였다.

현대제철은 유류자산 매각과 함께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합철부산물의 자원순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성분 함유 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자원화 전문 협력사와 연계한 순환자원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제철소에서 발생한 합철부산물이 외부 자원화 공정을 거쳐 다시 철강 생산에 활용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부산물 활용처를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혜운 기자 dhahledhale@

HD현대, ‘조선소 종합 솔루션’ 사업 본격화

美 프레이저 인더스트리 MOU

HD현대가 미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설계부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조선소 종합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한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조선소 현대화 사업을 첫 해외 프로젝트로 연결하며 미국 조선업 재진 시장 공략에 나섰다.

30일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프레이저 인더스트리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조선소 현대화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 3월 정관에 ‘디지털 엔지니어링-매뉴팩처링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이후 추진한 ‘조선소 건설 종합 솔루션’ 사업의 첫 프로젝트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조선소 진단 및 솔루션 도출 ▲야드·공장 레이아웃 설계 ▲로봇·자동화 설비 도입 ▲비용·공정·품질·생산성 최적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 솔루션 적용 ▲공급망 확대 및 기술 인력 양성 등 조선소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한다. /유혜운 기자

중소업체 “가맹거래 구입필수품목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본부·점주 분쟁원인 지적
“협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구입필수품목, 차액가맹금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에 구입필수품목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자체에 간이 분쟁조정절차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내놓은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구입필수품목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가맹사업법상 모호한 규정과 상당수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것’을 꼽았다.

또 가맹본부가 스스로 판단해 정보공개서에 구입필수품목을 등록하면 공정위와 법원의 위법 판단이 있기 전까진 가맹점주의 강제구매가 불가피한 등 사전 통제가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공생 관계를 인식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구입필수품목을 지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전자·엔비디아 출신 전문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삼성전자·엔비디아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AVP본부 자율주행개발센터장으로 권정현 부사장(사진)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자율주행 영역 전반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 모빌리티 전략 실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권 부사장은 최근까지 삼성전지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을 주도했고 그 이전에는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품화를 담당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다.

권 부사장은 자율주행 인식 소프트웨어, 딥러닝,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등 AI 기술 개발·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내 자율주행 핵심 기술의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총괄한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